



<광고>

혁신적인 기술개발로 비거리, 방향성이 진화된 2012 NEW 인프레스 X



2012년 인프레스 X 드라이버는 야마하의 독자적인 특허 기술인 세계 최초의 '팁 웨이트 테크놀로지'를 탑재해 더욱 증가된 비거리를 경험하게 된다. 여기에 반발 에어리어를 확대한 '얼티메이트-페이스'와 2011년부터 적용된 얇은 그물망 모양의 크라운구조 '파워 케미컬 밀링 크라운' 기술로 무장, 더욱 만족스러운 비거리와 방향성 향상을 보여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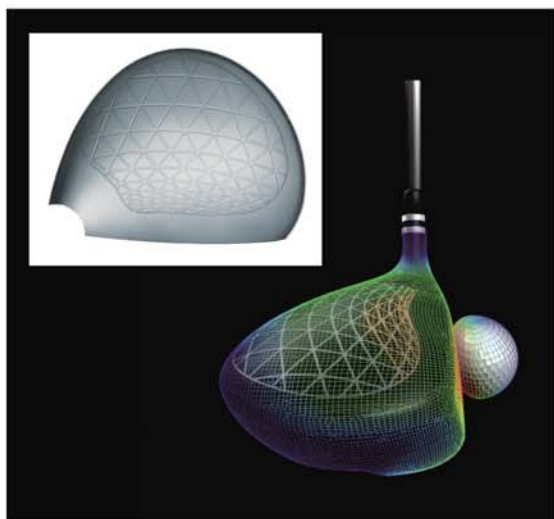
2012년 야마하 인프레스 X 아이언은 초,중,상급자 누구라도 골퍼의 수준에 맞추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로 선택의 영역을 넓혔다. 초급자까지 겨냥한 Z캐비티, 중급자용 연철단조아이언 D 상급자용 V포지드 아이언이 함께 출시되었다. 치기 쉬우면서도 강한 탄도를 뽐내며, 안정된 방향성과 뛰어난 비거리를 겸비하고 있다.



Shaft (일본특허출원)
세계 최초의 <비거리>샤프트
팁 웨이트 테크놀로지
팁 웨이트 테크놀로지(Tip Weight Technology)는 야마하의 방대한 스윙분석을 통해 임팩트 시 일어나는 샤프트의 불필요한 휘어짐이 큰 에너지 손실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발견, 휨 점인 샤프트 아래 부분에 5cm 넓이의 텅스텐 시트를 감아 휘어짐을 방지, 볼에 전달되는 에너지를 최대화 하는 이론이다. 이러한 기술로 임팩트 시 헤드 진행을 막는 휨 현상을 줄여 1m/s의 초속향상이 나타나며, 샤프트 휨 현상 방지로 150rpm 정도의 감소된 스피ن량이 약 5야드 이상의 비거리를 늘려준다.



Face
최대 광역 반발 에어리어
얼티메이트-페이스
얼티메이트-페이스(ULTIMATE-FACE)는 골퍼의 기량을 불문하고 최대 비거리를 보장하는 넓은 반발에어리어를 가진 페이스 구조다. 이러한 구조는 페이스의 반발에어리어를 극대화해 드라이버가 중심에서 벗어난 샷을 해도 파워 손실을 줄일 수 있고, 방향성을 수정하는데 도움을 준다.



Head
강탄도로 인한 최대 비거리 실현
파워 케미컬 밀링 크라운
크라운(헤드윗면) 안쪽을 화학 처리하여 0.45~0.75mm 두께의 그물망 모양의 형상을 한 크라운을 만든 것이 파워 케미컬 밀링 크라운이다. 페이스 가까운 쪽의 크라운은 임팩트 시 세밀한 그물코 모양이 휘어져 타출각을 높여주고, 스피ن량을 억제한다. 동시에 크라운을 최대한 얇게 제작하여 헤드의 경량화, 저중심화에 성공, '강탄도'로 인한 비거리 증가를 보여준다.



Z 캐비티(Cavity)
2011년 선풍적 인기를 누린 D Black 아이언을 더욱 쉽게 설계, 제작한 초,중급자용 제품. 인프레스 X 사상 최대의 관성모멘트로 쉽게 쳐서 멀리 가는 편안한 아이언이다. 초,중급자의 비거리와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준 착한 아이언이다. (그라파이트 샤프트)

D 포지드(Forged)
중상급자를 위해 타구감을 살린 연철단조보다 아이언. 2011 스틸 아이언 중 가장 좋은 반응을 얻은 D Steel을 단조로 업그레이드 시켜 타구감이 좋다. 넓은 반발 에어리어와 그라운드 빠짐이 좋아 비거리와 방향성에서 발군의 성능을 보여준다. (스틸 샤프트)

V 포지드(Forged)
겨냥한대로 볼의 거리, 방향성, 탄도의 조절이 가능한 모델. 아이언을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상급자 골퍼들에게 추천하며 특유의 손맛을 느낄 수 있는 연철단조아이언. 신기능 '밀링페이스'는 강력한 백스핀을 구사한다. (스틸/그라파이트 샤프트 2종)

D 파워 포지드(Power Forged)
D 파워 포지드 아이언은 한국 골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, 야마하가 개발한 최초 한국형 단조아이언이다. 단조아이언은 예민하다는 공식을 깨트리고 중급자 수준의 골퍼가 어렵지 않게 단조아이언의 장점을 즐길 수 있도록 제작했다. 최대의 캐비티 면적을 보유 방향성에 특히 강점을 보인다. (스틸/그라파이트 샤프트 2종)